

한국-인도의 교류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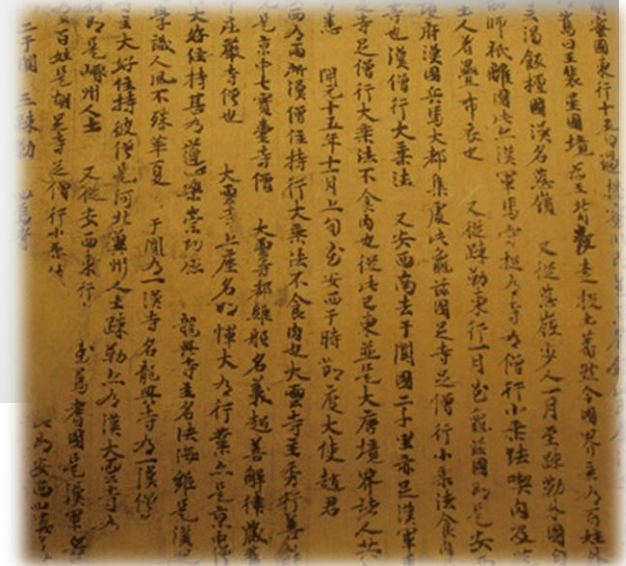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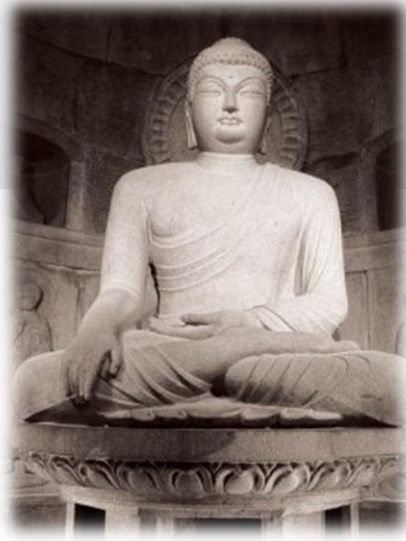
-고대에서 **1950**년까지

이옥순 (연세대)

□ 인도와 한국은 근대 이전까지 직접적 교류는 없었으나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교류.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온 불교는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될 정도로 큰 영향

- 혜초 등 일부 승려 인도 방문. 8세기 인도 북부를 방문한 혜초는 당시 정세를 알려주는 여행기 '왕오천축국전' 남김. 1908년 중국에서 발견

- 고대 한국의 역사서 '삼국유사' 는 인도 승려 아도, 마라난타 등 3명이 백제 등 한국에 왔다고 기록



□ 인도와 한국의 교역 - 5~6세기부터 실크로드와 동남아의 해로를 통해 이뤄짐. 인도산 직물, 향료, 유리제품, 공작 털, 보석 등이 당시 신라에 도착하여 귀족에게 인기를 끌었음

□ '삼국유사' 에는 가야국 김수로 왕의 왕비 허황옥이 아유타 왕국의 공주라고 기록. 일부 한국인, 기원후 48년에 배를 타고 가야에 왔다는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해석. 한국 가야 유적지와 북부 인도에서 발견되는 '쌍어문' 을 증거로.

-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치인들이 양국의 친밀한 관계를 부각하려고 이 사실을 꾸준히 언급, 점차 인도에서도 이 '신화'를 믿기 시작함

- 2002년 한국의 '가락중앙종친회'가 아요디아에 '허황후탄생비'를 세우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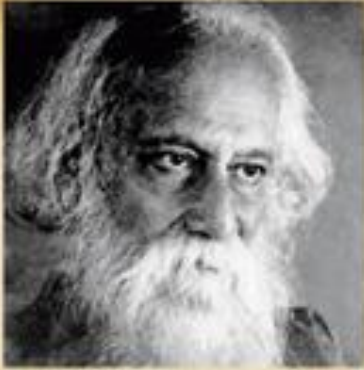
- 허황후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론 논쟁의 여지가 있음



□ 일부 학자들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(훈민정음)이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.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함

- □ 근대 일제하의 한국은 영국 지배를 받는 인도에게 큰 관심. 특히 인도의 독립운동과 간디의 움직임이 주요 관심사. 인도가 성공적으로 독립하면 일본의 지배를 받는 한국도 희망이 있기 때문
- - 1921년 동아일보에만 150건이 넘는 인도 기사 게재. 1930-31년(소금행진과 간디-어원 총독회담, 인도-영국의 원탁회의가 열린)에도 인도 뉴스가 매일 보도, 신문의 헤드라인을 차지
- - 인도를 다룬 신문사설과 논평기사 다수. 동아일보/ 조선일보에 실린 인도에 관한 사설은 54건(1981-2000년 두 신문에 실린 사설 8건의 약 7배)
- - 김일천 등 일부 한국인 인도 방문, 간디와 네루 면담. 시인 모윤숙도 인도에서 네루, 사로지니 나이두 만남





Excerpts from the
English translation of the
Lamp of the East by
Rabindranath Tagore

*In the golden age
of Asia*

*Korea was one of its
lamp-bearers*

*And that lamp is
waiting to be lighted
once again*

*For the illumination
of the East*

□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 - 인도 시인 타고르가 일제하 고통 받는 한국인을 위해 선사한 '동방의 등불' 이라는 시를 게재

“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, 빛나는 등불의 하나인 조선,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,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.”

- 이는 세계적 시성이 일본의 지배로 억압받는 한국인을 위해 쓴 격려의 시로 알려지면서 사랑을 받음. 실제 타고르는 식민 지배를 받는 한국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 견지

- 현재 한국의 국어교과서에는 타고르의 시가 여러 편 실림

- 한국에 타고르를 기리는 한인문화연구원(구 타고르문학회)이 활동. 단체의 대표 김양식은 양국 간의 문화교류에 기여한 바로 2002년 인도정부에서 훈장 받음

□ 인도도 일제하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심. 마하트마 간디는 한국인에게 격려의 엽서 보내옴.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도 1942년 간디와 국민회의 측에 응원의 전문을 보냄

- 나중에 인도 총리가 된 자와할랄 네루는 딸(인디라 간디)에게 보낸 옥중서한에서 “한국인이 엄청난 강적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다”고 1919년 3.1독립운동을 설명



□ 독립 후 1948년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회 (UNTCOK) 의장에 인도인 K. P. S. 메논은 "한국인이 독립을 갈망하듯 통일을 갈망한다." 고 남북한 분단을 반대하며 우호적 입장. 결국 '남한에서의 총선거 실시' 를 성사, 한국정부 수립에 기여

- 곧이어 1950년 한국에 6.25전쟁이 발발하자 인도는 야전이동병원부대를 지원

□ 앞의 개요처럼 근대까지 양국이 직접 접촉한 사례는 없으나 사실상 문화적으로 친족관계(타고르의 표현)

- 3면이 바다인 양국은 지정학적 특성으로 서북지방에서 침입한 세력의 영향을 받는 유사한 역사 소유 근대의 식민지 경험의 공통점, 연민과 격려 관계

- 양국 다 불행한 근대사를 넘어서 독립 후 빠르게 발전하면서 민주주의 실천

- 1973년 양국의 공식적 수교 이후 관계 증진, 특히 21세기 들어서 경제, 문화, 외교 등 다방면에서 한층 친밀해짐

